자연은 지금 법문 중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요즘 들어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자주 접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유럽, 아시아 곳곳이 불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올해 봄이 너무 일찍 왔다",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이건 단지 계절 탓이 아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미 경고해 왔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했고, 지금 같은 속도라면 2030년엔 1.5도를 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회복력을 잃고,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문턱을 넘게 된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징조를 겪고 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기상이변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 절반 크기의 산림이 불탔고, 수만 명이 대피했다. 자연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업에 따른 과보이다.

모든 현상은 법문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기후위기 또한 부처님의 설법이다. 책 속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의 '당체법문(當體法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첫째, 인간은 탐욕으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다. 석탄과 석유, 가스를 마구 써 온실가스를 넘치게 했고, 이는 지구를 가둬 뜨겁게 만들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는 '투도', 곧 도둑질이다. 자연의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업이다.

현 기후위기, 우리 業의 산물
자연 순환 끊은 구조적 업보
욕망 식을 때 지구도 식는다

둘째, 우리는 숲을 밀어 공장을 짓고 도시를 세우며 탄소 흡수원을 제거했다. 이 또한 공동의 무지, 곧 공업(共業)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의 순환을 인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다.

셋째, 우리는 다음 세대가 쓸 자원까지 앞당겨 써버렸다. 그 결과 미래 세대는 우리가 지은 업의 과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이것은 세대 간의 '투도'이며, 구조적인 업보이다.

이러한 탐욕과 무지, 투도는 결국 오늘의 지옥을 만들었다.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곧 현세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는 회피하는 종교가 아니다. 고통을 똑바로 자각하는 데서부터 업의 정화가 시작된다. '이건 내 업이 아니다'라며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업을 짓는다. 하지만 '이건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그러니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삶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와 소비를 줄이고, 고기 섭취를 줄이며,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수행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탐욕을 멈추는 마음공부이다. 절제와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업을 쌓는 길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는 마법 같은 해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부처님은 지금도 불길 속에서 설법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듣고도 외면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망각이다.

불길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 욕망이 만든 불길이다. 그 마음이 식을 때, 지구도 식게 될 것이다.

'대마도 한국문화원'이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지난 3월 25일 일본 대마도에 다녀왔다.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기념석이 대마도박물관에 있었다. '성신지교린(誠信之交隣)', 외교는 신의를 기본으로 성심성의를 가지고 이웃과 같이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시냇물이 바닷물을 이루는 것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마도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가 〈교린제성(交隣提醒)〉이라는 책 속에서 강조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소위 7년 전쟁으로 조선과 왜국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 틈에 끼인 대마도는 그야말로 살길이 막막했다. 대마도 번주는 조선과의 화친을 위해 국왕 문서를 위조할 정도로 다급했고, 다행히 집권한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화평을 희망했다. 왜국은 대마도 번주는 조선에 사신을 보냈고 1604년 사명 대사가 왜국에 사신으로 왔다. 그 이후 '성신지교린' 정신으로 양국은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270년이 넘게 유지된 외교 정신이다.

서산 부석사 불상 봉안 운동을 계기로 대마도에 많은 한국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이 조명되고 있다. '대마의 미술'에는 '조선의 불상' 87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다구두혼 신사에 있는 고려 청동반자(쇠북)는 1245년 5월 진양공 최이가 강화도 선원사 창건 기념으로 제작한 것이다.

사실, 대마도나 규슈 등 서일본지역의 문화유산은 개인이나 신사, 사찰의 소유가 많다. 이런

부석사 관음상, 대마博 봉안 예정
韓법원 '약탈' 인정, 문제 소지多
신의 부합할 민관단체 발족 필요

이유로 전수조사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도 사장(死藏)되어 있거나 밀거래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암거래를 방지하고 공개·공유할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실제로 부석사 불상 도난 사건 외에 문화유산 절도 사건은 그 이전에도 10여 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일본에 있다. 2022년 개관한 '시립 대마박물관'은 부석사 불상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다.

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출처와 내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소장품의 불법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유산이 유래한 기원국과 협력하고 반환에 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법원이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한 부석사 불상을 대마박물관이 보관 전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부석사 불상만의 해결이 아닌 대마도에 있는 전체 유산과 유적에 대한 조사와 가치 확산 방안, 고령화된 대마도의 사정으로 무인 상태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산과 방치되는 유적지 그리고 연간 3~4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 방문객 등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의에 부합하고 성심성의를 다해 교류 협력할 현지에서의 주체가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계승할 수 있어야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대마도에 명예영사제도를 활용한 '한국문화원'의 개원을 국회에 제안했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마침 한국인 사찰로 처음 개원한 '황룡사'가 최적지란 뜻을 모았다. 민관협력 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社 說

최악 화마 할퀸 자리, 자비로 치유를

3월 21일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영남 산불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듯하다. 3월 30일 주불이 진화된 영남 산불은 서울 면적 80%에 달하는 4만8238ha의 대지를 태웠고, 사망 30명, 부상 45명 등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택 3000여 채, 국가유산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모두 6000여 건의 시설 피해가 났다.

고찰과 전통사찰들이 대부분 산에 있는 만큼 불교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의성 고운사·운람사·만장사, 청송 수정사·보광사, 안동 용담사 등 총 6곳의 사찰이 산불 피해를 입었고, 불교문화유산(국가지정유산, 경북 유형문화유산) 피해는 9건으로 확인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불교계의 자비행은 비단 피해 사찰에만 머물지 않는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는 봉축 예산을 지역의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데 회향하기로 했다. 매년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해 진행한 1080배 정진 모금 운동도 이재민 돕기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불교 사자성어가 '빈자일등(貧者一燈)'이다. 거지 여인이 모든 것을 바쳐 밝힌 등불은 세찬 비바람에도 홀로 빛났다.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 자비의 연등을 밝혀 치유하자. 불자와 국민의 서원과 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원통합, 포교·출가 혁신으로 이어져야

4월 1일 조계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94년 종단개혁의 성과로 출범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총무원 1원으로 통합된 것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31일 개편된 조직에 따라 부·실장 및 국장 등 교역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연구소와 미디어홍보실 신설이다. 조계종연구소는 종단 내 불교사회연구소,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 등 연구조직을 통합한 것으로, 종단 종책 연구와 어젠다를 마련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디어홍보실은 한국불교 관련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종단 대사회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종단 뉴미디어 운영, 불교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통합해 총무원 1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는 더 이상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 형태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리어 각 원별로 자체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행정력이 분산돼 3원 독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이번 삼원통합의 핵심도 포교와 출가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처를 목표로 한다. 변화된 조직에서 한국불교 포교와 출가 문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종책이 수립·시행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한마음부모교육

행복한 부모의 길
공감과 소통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35명)
일 정 : 5월 1일 ~ 6월 19일 매주 목요일, 8주간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신청방법 : hansi.org 또는 전화
전 화 : (031) 470-3200, 3196
신청QR코드

행복한 부모의 길-공감과 소통 교육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또는 살아가려는 모든 분이 부모 이전의 자기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